

어머니의 애정철회, 유아의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aternal Love Withdrawal,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Verbal Ability on Relational Aggressio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신 유 림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Yoo Lim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relational aggression was distinct from physical aggression in young children. Moreover,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verbal ability, maternal love withdrawal and relational aggression were investigated. Participants were 3 year old 356 children recruited from middle income families. Children's verbal ability was assessed by interview and teachers' measure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results presented tha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a 2-factor model. Emotional regulation, verbal ability, and maternal love withdrawal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relational aggression.

주제어(Key Words) :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애정철회(love withdrawal),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언어능력(verbal 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Yoo 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G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7 Fax: +82-2-2164-4485 E-mail:yoolim@catholic.ac.kr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13-C00955)

I. 서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 구인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 관계적 공격성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공격성은 유아기 사회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유아기 이후의 발달에서 부적응 문제를 예언해주는 행동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 중 공격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관심이 되어 왔다. 공격성은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공격성은 밀기,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신체적 행위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방해하여 또래들을 집단에서 배척 또는 소외시키거나 소문내기나 같은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의 발달과정을 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12개월경부터 물기,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행동이 관찰되기 시작한다(Tremblay, et al., 2004). 이 시기에는 언어적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체적 공격성을 사용하게 되며 이후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신체적 공격성은 점차 감소하는 발달 경향을 보인다(Tremblay, et al., 2004).

신체적 공격성의 발달과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은 발달시기에 대한 이슈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져 왔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인지 및 언어능력에 기초하여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신체적 공격성과는 다르게 만 3세 무렵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하며, 아동기 중반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Underwood, 2003). 공격성의 발달 궤적을 추적한 종단적 연구를 보면 발달초기에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하위 집단의 유아들이 있으며 2세 때 측정된 부모 및 유아 개인 변인들이 이러한 하위 집단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반면에 신체적 공격성과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에 기초가 되므로 8세까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Bjo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2).

신체적 공격성과 비교하여 관계적 공격성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심리적 구인으로 공격성의 구인 타당도를 규명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공격성의 두 가지 유형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서로 구분되는 유형임을 제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도 보고되었으나

(Crick & Grotpeter, 1995; Grotpeter & Crick, 1996; Tomada & Schneider, 1997),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3-6학년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최근 김연(2010)은 만 3-5세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의 공격성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두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이 발달되는 시점인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공격성의 초기발달은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모-자녀의 갈등적 관계는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수입 및 교육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공격성을 예언해주는 요인이었다. Vailancourt, Miller, Fagbemi, Cote와 Tremblay(2007)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부모-자녀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및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러시아 유아를 대상으로 한 Hart 외(2000)의 연구에서도 엄마가 강압적이며 반응성이 부족하고 부부 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경우에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적 공격성도 가족의 맥락 내에서 발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부모의 심리 통제적 양육태도 중에서 애정철회(love withdrawal)와 관련성이 있다(Nelson & Crick, 2002).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양육태도로 아동의 생각, 표현과 감정에 대해 부모가 애정을 철회하고 아동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부모의 애정철회 양육태도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성은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부모가 아동에게 화가 났을 때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관계를 단절하고 관계에 손상을 주는 방법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온 아동은 가정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Yang 외(2004)에 따르면 중국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관계적 공격성을 예언해주었으며 특히 남아에 비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Nelson과 Crick(2002)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해주었으나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은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elson, Hart, Yang, Olden과 Jin(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보다는 여

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더 높았으며 반면에 부모의 신체적 처벌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을 더 강하게 예언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어(Hart, et al., 2000), 이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언어능력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관련성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상반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Guralnick, Connor, Hammond, Gottman, & Kinnish, 1996), 관계적 공격성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Bonica, Arnold, Fisher, & Zelji, 2003). 신유림(2008)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유아의 수용 및 표현 언어의 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관계적 공격성 집단의 언어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iel(1990)의 언어발달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아와 비교하여 여아의 경우에 언어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언어능력이 발달한 여아의 경우 언어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아기 공격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아 개인 변인으로 언어능력과 함께 정서조절능력을 들 수 있다. 공격성은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분노나 좌절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Crick, 1997). 신체적 공격성은 분노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공감, 죄책감 및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와 관련성이 있다(Underwood, 2003). 아동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와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Underwood, 2003). 또한 질투심은 자신이 원하는 사물, 사회적 지위나 친근한 관계를 타인이 갖고 있을 때 유발되는 정서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높는데,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질투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았다(Underwood, 2003). Crick(1997)의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대인관계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 결과,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고한 아동들은 실제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 신체적 공격성과 유사하게 관계적 공격성도 분노 정서에 의해 유발된 목표를 성취하기 사용될 수 있으나 신체적 공격성과 구분되는 점은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 정서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ullivan, Helms, Kliever와 Goodman(2008)의 연구에서 슬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적 공격성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공격성과 정서조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연구를 보면,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었으며(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김성애와 박성연(2009)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구분 없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관계적 공격성이 발달하는 시점인 만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구인 타당도를 측정하고,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 변인으로 애정철회 양육태도와 유아 개인 변인으로 정서조절 및 언어지능을 설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적 공격성의 구인 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애정철회 양육태도, 유아의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은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5개 유치원과 14개 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19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기관의 원장 및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 재원중인 만 3세 유아 356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 대상 유아들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0명(53.4%)이었고 여자는 166명(46.6%)이었다.

2. 측정방법

1) 어머니의 애정철회

어머니의 애정철회 양육태도는 부모 보고용 심리통제 측정도구(Barber, 1996; Hart, et al., 2000)의 7개 하위 척도 중에서 하위척도인 애정철회의 5문항(예: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더 이상 예뻐하지 않을 거라고 아이에게 겁을 준다.)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냉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애정 철회적 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애정철회 척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92 이었다.

2)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8)의 정서조절 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사용하며, 교사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도구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예: 화가 나서 활동이나 놀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5점 척도이며, 내적 일치도는 .918이었다.

3)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아용 지능검사 도구인 K-WPPSI의 하위 검사인 어휘검사를 사용하여 유아의 언어발달을 측정하였다. 어휘검사는 유아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이름을 말하는 그림검사 3문항과 단어를 제시하고 단어의 뜻을 말하도록 하는 구두검사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검사는 정답에 대하여 각각 1점을 주고, 구두검사는 0-2점으로 채점하였다.

4) 유아의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Crick(1997)과 Crick, Bighee와 Howes(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보고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과(예: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놀이집단에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로 협박한다.), 신체적 공격성 5문항(예: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발로 찬다)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는 4점 척도이며 (4점 = 항상 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평소 아동 관찰에 기초하여 공격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신뢰도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신체적 공격성은 .830이었고, 관계적 공격성은 .920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빈 교실에서 유아 개인별로 언어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으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정서조절과 공격성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공격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별 각 문항들이 하위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mos 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χ^2 값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는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애정철회,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조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애정철회 및 언어능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조절 정도가 높고, 언어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철회 정도가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N = 356)

변 인	1	2	3
1. 애정철회			
2. 정서조절	.179**		
3. 언어능력	.119*	.041	
4. 관계적 공격성	.144**	.610***	.132*

* $p < .05$. ** $p < .01$. *** $p < .001$.

2.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공격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하였으며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요인은 3개로 탐색되었다. 요인계수가 .40 이하인 한 문항과 (교사에게 화가 나면 교사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1개 문항으로 구성된 11번(다른 유아로부터 놀이감을 빼앗는다)을 삭제하여 최종 구성된 문항은 총 2개 요인에 9개 문항이었으며, 설명 변량은 67.838%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요인1은 총 3개 문항이며, 문항들의 내용을 보면 '방해 받으면 성을 내다'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른다'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발로 찬다' 등으로 신체적 공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은 21.837%이다. 요인2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생일 날 초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 '한 유아를 정해서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싫어하게 한다' 등으로 관계적 공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변량은 36.766%이다.

요인별 각 문항들의 하위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595이상이었다. 공격성 하위요인과 각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chi^2 = 26.228(DF = 10, p < .001)$ 로 유의미하였으나, 적합도 지수는 TLI = .957, CFI = .990,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내 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4	방해받으면 성을 낸다.	.817		
3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른다.	.850		
5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발로 찬다.	.771		
2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생일 날 초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		.766	
4	한 유아를 정해서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싫어하게 한다.		.810	
6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놀이집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로 협박한다.		.796	
8	자신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른 유아에게 같이 안 놀 것으로 말한다.		.741	
9	특정 유아를 지목해서 이 유아와 놀지 말라고 다른 유아들에게 말한다.		.864	
10	한 유아에게 화가 나면 이 유아를 놀이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822	
11	다른 유아로부터 놀이감을 빼앗는다.			.978
	고유치	1,310	5,137	1,015
	설명변량(%)	21.837	36.766	9.235
	누적변량(%)	21.837	58.603	67.838

RMSEA = .062로 공격성 구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함을 알 수 있다.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CFI와 TLI는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된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26.228***	10	.957	.990	.062

*** $p < .001$.

3.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언어능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애정철회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정서조절을 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언어능력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종속변인을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3, p < .05$). 2단계로 투입된 애정철회는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종속변인을 1.8% 추가로 설명하였다($\beta = .135, p < .05$). 3단계에서 투입된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beta = .577, p < .001$), 추가로 종속변인을 32.2%를 설명하였다.

〈표 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 계 변 인	(N = 356)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언어능력	.123*		
애정철회		.135*	
정서조절			.577***
ΔR^2		.018	.322
R^2	.015	.033	.355
F	4.326	4.798	51.421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구인 타당도를 점검해보고 어머니의 애정철회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2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LI, CFI 및 RMSEA 등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구인 타당도를 입증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Underwood(2003)는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다음과 같은 차이점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구인임을 제안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아동은 자신에게 공격적인 피해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가해 아동을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해 아동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 공격성 발생 시간 측면에서 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즉각적인 신체적 아픔과 같은 손상을 야기시킨다. 이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은 비교적 공격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장기적으로 정서적인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결과는 이러한 Underwood 견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애정철회는 관계적 공격성을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애정철회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관계 단절을 위한 위협이나 관계에 손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유사하다. 즉 애정철회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 두고 (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동이 부모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의 감정과 태도가 쉽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빈번하게 어머니가 애정철회의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에 아동은 가정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정철회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성은 애착이론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에 유아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에 기초가 되는 내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Nelson et al., 2006). 이러한 애착이론에 기초해볼 때, 가정에서 빈번하게 애정철회를 경험한 유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부터 거부되거나 조건적으로 수용되는 대인관계의 표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관계적 공격성의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Rohner의 부모 수용-거부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Rohner의 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수용된다고 느끼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Rohner, 1986). 특히 어머니가 신체 처벌적이고 심리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은 이러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Brown, Arnold, Dobbs와 Doctoroff(2007)는 가정에서 치우기 과제(clean-up task)를 주고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어머니의 애정 철회적인 태도는 부정적 정서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애정철회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어머니는 분노와 냉정함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아동에게 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연구자들은 이러한 양육태도가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Barber, 1996). 본 연구의 대상은 3세 유아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어린 연령이므로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이후 발달에서의 부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언어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들 사이의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 관계의 중단을 위협하는 행동과 피해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거나 흉을 보는 언어적 행위로 표현된다. 대부분의 관계적 공격성의 행동은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되므로 언어가 발달된 유아들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인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McNeilly-Choque,

Hart, Robinson, Nelson, & Olsen 1996). 관계적 공격성과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연구한 Bonica 외(2003)의 연구에서도 관계적 공격성과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또래들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언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만 3세 시기에 발달되는 언어가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들을 배척하거나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사회적 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은 애정철회와 언어능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공격성의 연구와는 다르게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서 변인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져 왔다(Underwood, 2003).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 행동에는 분노, 질투 및 수치심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에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Crick(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가 장난감을 부순다'와 같은 도구적인 공격성 발생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같은 관계적 갈등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Crick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유아들의 경우에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노와 스트레스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만 3세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상호 구분되는 다른 구인이며,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고, 이러한 부모 양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과 같은 유아의 정서 및 언어발달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기 관계적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며 또래 집단의 거부와 같은 이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rick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만 3세 시기에 관계적 공격성 성향을 보이는 유아들을 조기에 선별하는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의 초기 발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유아를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능력 중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Zahn-Waxler, Park, Essex와 Slattery(2005)의 연구를 보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해주는 정서공감능력이 결핍된 아동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았다. 이에 기초해 볼 때, 정서능력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인 정서이해능력과 관련성을 규명해 보는 연구가 실시된다면 관계적 공격성과 정서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 3세의 현시점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인과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만 3세에 측정된 관계적 공격적 성향이 이후 발달에서 안정적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더불어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인 영향을 규명해 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애, 박성연(2009).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보호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30(1), 43-57.
- 김연(2010).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8(1), 55-66.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신유림(2008). 유아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성차 및 언어,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8(2), 95-111.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jorkquist, K., Osterman, M. D., & Kaukianen, A.(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onica, C., Arnold, D. H., Fisher, P. H., & Zeljo, A.(2003). Relational aggressio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12, 551-562.
- Brown, S. A., Arnold, D. H., Dobbs, J., & Doctoroff, G. L.(2007). Parenting predictors of relational aggression among Puerto Rican and European American school-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 147-159.
- Crick, N. R.(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1996).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 1003-1014.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Grot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Guralnick, M. J., Connor, R. T., Hammond, M. A., Gottman, J. M., & Kinnish, K.(1996). The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Child Development*, 67, 471-489.
- Hart, C. H., Nelson, D. A., Olsen, S. F., Robinson, C., Jin, S., Win, P., et al.(2000).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behavior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77-81.
- Hu, L. T., & Bentler, P.(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McNeilly-Choque, M. K., Hart, C. H. M., Robinson, C. C., Nelson, D. A., & Olsen, S. F.(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 47-67.
- Nelson, D. A., & Crick, N. R.(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lson, D. A., Hart, C. H., Yang, C., Olsen, J. A., & Jin, S.(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3), 554-57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4).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9(4).
- Piel, J. A.(1990). Unmasking sex and social class differences in childhood aggression: The case for language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4, 100-106.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s: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ousand Oak, CA: Sage.
- Shields, A., & Cicchetti, K.(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3.
-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L.(2008).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 30-51.
- Tomada, G., & Schneider, B.(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01-609.
- Tremblay, R. E., Daniel, S. N., Se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et al.(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 43-50.
- Underwood, M.(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Y: Guilford Press.
- Vaillancourt, T., Miller, J. L., Fagbemi, J., Cote, S., & Tremblay, R.(2007).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3, 314-326.
- Yang, C., Hart, C. H., Nelson, D. A., Olsen, S. F., Robinson, C. C., & Jin, S.(2004). Fathering in Beijing, Chinese sample: Associations with boy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and aggression. In R. D. Day & M. E. Lamb (Ed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pp.185-215). Mahwah, NJ: Erlbaum.
- Zahn-Waxler, C., Park, J. H., Essex, M., & Slattery, M.(2005).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disruptive adolescen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2), 259-282.

접 수 일 : 2010년 2월 27일

심사시작일 : 2010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4일